



김진철 교수의 신나는 실전 골프

〈전남과학대 골프·프로캐디학과 교수〉

클럽헤드 밟고 그립 끝 방향 주시 나무 위면 로브샷·아래면 펀치샷

■ 로브샷·펀치샷·넉다운샷

PGA 등 프로골프 대회에서 인상적인 샷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앞에 나무가 놓여있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때 볼을 띄워치거나 낮게 깔아치는 장면 등이다.

프로들의 샷을 따라하고 싶은데 아마추어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못치는 샷은 없으며 정확한 자세와 반복되는 연습이 뒤따르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는게 골프 전문가들의 얘기다.

이번 주 실전골프는 볼을 높게 띄어치는 로브 샷(lob shot)과 낮게 깔아치는 펀치 샷(punch shot)과 넉다운 샷(knockdown shot)에 대해 알아본다.

티샷한 볼이 페어웨이 나무 뒤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그린을 향한 두번째 샷을 날릴 것인가? 방법은 여러가지 있으나 크게 두가지의 방법이 있다.

나무 위로 넘기는 샷과 나무 가지 밑으로 샷하는 경우이다. 위로 넘기기 위해서 로브샷을, 낮게 깔아치기 위해서는 펀치 샷 요령을 익혀야 한다.

볼 밑부분을 파고드는 샷

#1 로브 샷

로브샷은 앞에 있는 나무·벙커 등의 장애물을 넘겨 그린에 가깝게 볼이거나 직접 공략을 할때 사용하는 까다로운 샷이다.

우선 앞을 가로막고 서있는 나무 위로 샷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측정해야 한다. 샷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클럽을 바닥에 놓고 헤드를 발로 밟았을 때 그립 끝의 방향이 나무 위를 넘어서면 샷이 가능하다.

어드레스 때 스탠스는 오픈되고, 머리는 오른쪽에 있게 자세를 취한다. 간결하고 정교한 샷을 위해 클럽은 조금 짧게 내려 잡고, 양 발의 폭은 평소보다 약간 좁

히는 게 좋다.

볼은 왼발 가까이 놓고, 클럽 페이스가 공의 밑부분을 파고드는 기분으로 샷한다.

물론 그립을 가볍게 쥐고 어깨에 힘을 빼는 것은 기본이고 헤드업은 더욱 금물이다.

로브샷을 위해서는 로브웨지나 샌드웨지 처럼 로프트가 큰 클럽을 선택하는게 좋다. 볼이 뜨는 각도가 클수록 공이 떨어져 구르는 거리가 짧기 때문이다.

짧게 잡고 피니시 늦게

#2 펀치 샷

나무 등 앞에 놓인 장애물 위로 볼을 넘길 수 없을 때 또는 바람이 많이 불어 높이 띄우기 어려울 때 하는 샷이다.

아마추어 골퍼들이 강한 바람이 부는 골프장에서 바람의 강도나 방향을 외면한채 자신의 의지대로 샷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자신이 목표했던 곳에 볼을 날리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다. 바람을 이길려는 억지 보다는 바람을 이용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펀치 샷 요령은 먼저 클럽을 짧게 잡는 것이다. 볼을 정확히 맞출 수 있고, 클럽을 컨트롤하기 쉽기 때문이다. 백스윙은 보통 샷 때의 백스윙 보다 4분의 3 정도만 한다. 풀 스윙 처럼 뒤로 돌리면 볼에 백스핀이 많이 걸려 볼이 뜨게 되기 때문이다.

임팩트 순간은 손이 클럽헤드 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 반대로 헤드가 손보다 앞서 나가면 로프트가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없어 헤드가 들리게 돼 볼이 뜨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어드레스에선 볼을 우측에 놓고 오픈 스탠스를 취하고 체중은 6대4 정도로 왼발에 더 뒀다 한다.

피니시는 급격히 낮게 하프스윙과 비슷한 자세가 돼야 한다. 피니시가 길고 높으면 볼이 뜨게 되기 때문이다. 볼이 백스

핀이 많이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니시도 어깨 높이를 낮추는게 좋다.

바람, 이기려 말고 이용을

#3 넉다운 샷

넉다운 샷은 여러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특히 바람이 많이 불때 유용하다. 주의할 점은 풀 스피드로 스윙하지 않는 것과 어드레스부터 임팩트까지 계속 손이 공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볼은 양발의 중간이나 약간 오른쪽에 놓는게 좋다. 피니시는 손목이 완전히 릴리스 되지 않은 채 반만 끝난 포워드 스윙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다음은 바람의 방향에 따른 샷 요령이다.

▲옆바람= 옆바람은 공의 회전을 강하게 해 공의 비거리를 떨어뜨린다. 볼을 그린에 부드럽게 올려놓으려면 옆바람 쪽으로 커브를 넣어야 한다. 바람이 왼쪽에서 분다면 더 왼쪽을 겨냥해서 치면 되고, 오른쪽에서 분다면 더 오른쪽을 겨냥하면 된다. 바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바람을 잘 이용하자는 것이다. 거리가 많이 나기를 원하거나 공이 지면에 떨어질 후 많이 구르게 하고 싶다면 바람을 타도록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커브를 넣고 공을 낮게 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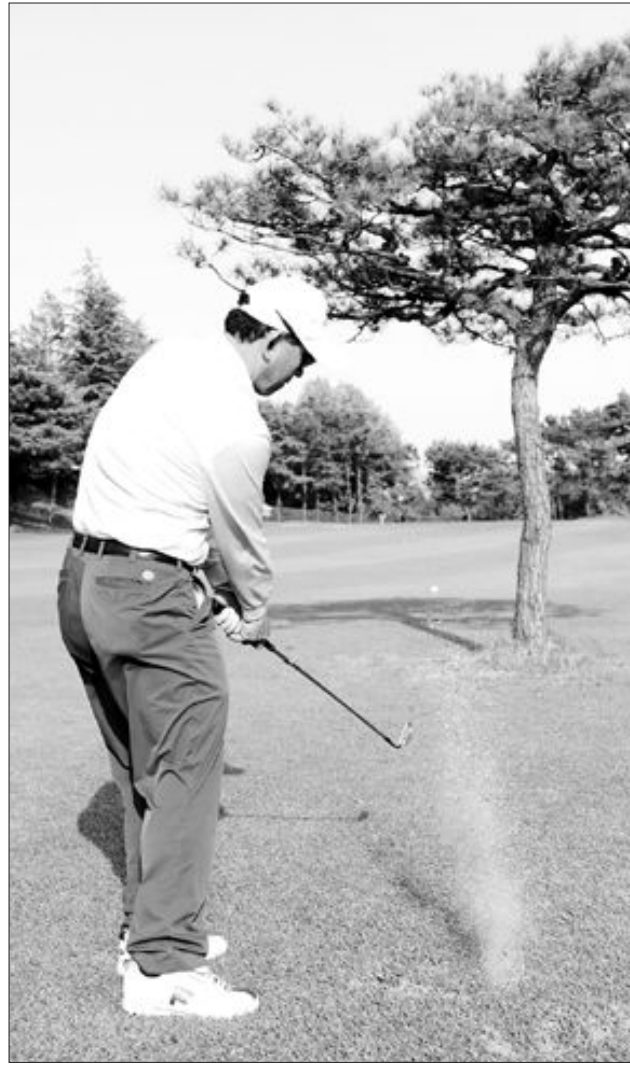
▲맞바람=맞바람에서는 넉 다운샷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평소보다 한 클럽 정도 길게 선택하고 정상 스윙의 80% 정도의 세기로 샷한다. 스윙의 강도를 낮추는 것은 공의 회전이 많이 걸리지 않고 바람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기 위해서다. 거리가 많이 나가는 것보다 목표한 타깃에 근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뒷바람=아마추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람의 방향이다. 거리가 많이 나가고 스윙에 무리한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바람 속에서 플레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을 정확하게 치는 것이다. 바람 속에서 사이드 스핀은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울원기자 swseo@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가로 막고 서있는 나무 위로 샷이 가능한지는 선택된 클럽을 바닥에 놓고 헤드부분을 발로 밟아보면 알 수 있다. 이때 그립 끝의 방향이 나무 위를 넘어서면 샷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나무 밑으로 볼을 쳐야 할 때 클럽을 짧게 잡고 하프스윙과 비슷한 자세로 샷을 하면 된다.

시추에이션 골프 룰

철망 걸러 멈춘 볼 1클럽 이내 드롭

Q : 볼이 페어웨이를 벗어나 구르다가 철망에 걸려 멈추었다. 다행히 OB말쪽보다 안쪽(코스 안)에 철망이 위치하고 있어 구제조치로 드롭을 하였을 때,

A : 볼이 워터 헤저드 안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로 부터 페널티 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니어리스트 포인트를 정하여 그곳에서 홀에 더 가깝지 않게 1클럽 길이 이내에 드롭하도록 한다.

위의 상황에서 만약 철망이 OB말쪽보다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OB에 있는 인공물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구제를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

플레이하거나, 언플레이어블의 구제 조치를 해야 한다.

Q : 볼이 페어웨이 가장자리에 설치되어있는 철제의 배수구 덮개 위에 멈추었을 때,

A : 배수구는 워터 헤저드로 정의되어 있지만 대부분 로컬 룰로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덮개가 없는 배수구 안에, 또는 배수구의 덮개 위에 볼이 멈추어 있거나, 스탠스가 걸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페널티 없이 배수구의 장애물 부터 벗어나는 가장 가깝고도 홀에 더 가깝지 않은 곳의 니어리스트 포인트를 찾아 그곳에서 홀에 더 가깝지 않게 1클럽 길이 이내에 드롭하지 않으면 안된다.

금주의 골프용품

페어웨이우드 비거리 늘고 타구음도 경쾌

단조 아이언 스피드 발사각 안정성 갖춰

'SQ 마하스피드 페어웨이우드'

SQ 마하스피드(Mach-speed) 페어웨이 우드는 '토탈 스윙 공기역학(Total Swing Aerodynamic)'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볼의 초기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면서 백스핀을 줄여주고 높은 타출각을 구현하도록 최적화해 설계했다. 점진적으로 스윙 스피드를 증진시키기 위해 솔과 크라운, 헤드 주변의 공기 흐름이 부드러우면서도 빠르게 이동하도록 디자인했다. 이를 통해 스윙 전 과정에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다.

또한 헤드면 각 부분마다 두께를 다르게 한 초냉각 크라이오 스틸 소재를 사용해 비거리를 한층 증진시켰으며, 큰 반발력과 경쾌한 타구음이 나도록 설계했다.

'SQ 마하스피드 단조 아이언'

SQ 마하스피드(Mach-speed) 단조 아이언은 한국과 일본 시장의 요구에 따라 전용 설계된 프리덤 단조 캐비티 아이언이다. 정밀연철단조의 부드러운 손맛과 기본 좋은 타구감은 물론 빠른 헤드 스피드와 높은 발사각, 방향 안정성을 모두 갖춘 최적화된 조합을 제공한다.

높은 반발성을 제공하여 비거리를 향상시켜주며, 레이어 용접으로 유효 타구면적을 확대했다. 또한 줄어든 중량은 헤드 주변부에 재배분하고, 중심 위치를 보다 낮추어 후방으로 설정한 포켓 캐비티 구조를 채택해 볼을 쉽게 띄우고 미스샷을 줄이도록 했다.

/취재협조:골프리자 062-368-7800

함평 다이내스티 C·C 사원 모집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친환경 양산디 골프장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에서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1. 모집요강

모집부서	인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경영지원	여 0명	프런트	경력, 신입
코스관리	남 0명	골프기운전 및 기타	경력, 신입
식음료팀	남,여 0명	조리사, 웨이터, 웨이츄레스, 주부사원(30대)	경력, 신입

2.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통

3. 복지제도

- 기숙사 제공 / 1일3식 제공 / 4대보험
- 년차휴가 / 주1회 휴무제공
- 하계 및 동계휴가 / 교통비지원 등 기타

4. 접수방법

- 우편 접수: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번지 경영지원팀
- 팩스 접수: 061-320-7710
- E-mail 접수: mannerwang@hanmail.net
- 문의전화: 061-320-7716(최관식)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

선거차량



음향차량, LED차량(1.5t, 2.5t, 5t)

선거홍보물 기획/제작/시공대행
www.jwad.co.kr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종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82-2285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폴라리스 복합상가 분양/임대

봉선동 2만여세대 완전 중심 상권 / 최고의 투자까지

모두가 꿈꾸는 탁월한 선택,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봉선동 중심상권!! 최고의 입지!! 봉선동 폴라리스 복합상가에 투자하신 모든 분들의 미래가치가 보이는 성공사업을 약속합니다.



편리하고 넓은 주차공간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하 60대, 지상 12대

- 1F 프리미엄 상권으로 최고의 가치를 보장합니다. 권/장/업/종: 은행/대형음식점/테트푸드/약국/계곡숙/동물병원/엔드몬테리얼/커피전문점 등
- 2F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의 특수성을 보장합니다. 권/장/업/종: 병의원/안의원/치과/미용/미부관리/커디언문장/당구장
- 3F 밀집된 학군으로 최적의 조건형성 권/장/업/종: 입사전문학원/독서실/보습학원/외국어학원/세무공/기타학원
- 4F 대단위 유동 인구와 소비여력의 최적화 상권 권/장/업/종: 스포츠센터/매일리메트로/스크린골프/유희/기타

폴라리스 분양/임대/문의 062) 674-4900